

'작가' 유시민 '역사의 역사' 출간

“역사는 시공 뛰어넘어 생각·감정 나누는 것
사실을 쓴 이야기고 언어로 재현한 과거”

“역사서설’이 오늘날까지 역사서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보편적 역사법칙을 밝혀서 아니라 귀중한 역사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다고 믿었던 역사법칙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7세기에 탄생한 이슬람 문명과 아랍 사회의 현황 및 특징을 기록했고, 당시 아랍 지식인들이 인간과 문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밀하게 서술했다. 이런 정보 덕분에 ‘역사서설’은 이슬람 문명의 발생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되었다.”

정치인 출신 작가 유시민(59)씨가 역사 르포 르타주 ‘역사의 역사’를 냈다.

“역사란 무엇인가’는 유씨가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이자 평생에 걸쳐 찾은 지적 과제다. 이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 역사의 발생사, 즉 역사의 역사를 깊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역사의 고전으로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거나 최근 관심을 끈 대표 역사서들을 찾아 틈틈이 읽고 정리했다.

인간의 역사에 남은 역사서와 역사가, 그 역사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들이 서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했다. 유씨가 탐사한 동서양 역사가 160인과 그들이 쓴 역사서 18권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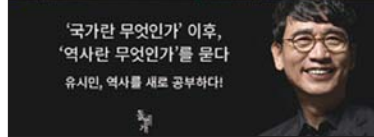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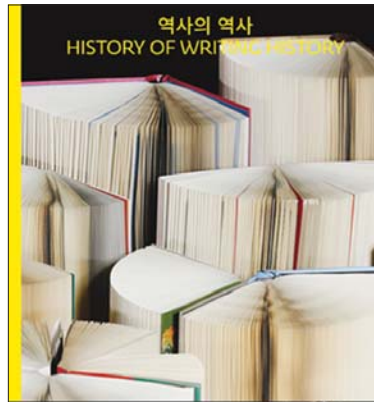
사마천의 ‘사기’, 이슬람 문명의 발생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한 길잡이가 돼 준

‘역사서설’ 등의 역사서를 고대부터 현재까지 시대 순으로 나눠 구성했다.

르포의 특성상 역사서들의 원문을 적지 않게 소개하고 인용할 수밖에 없다. 지면의 한계와 번역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 유씨가 발췌·요약과 번역까지 도맡았다. 각 역사서의 주요 내용과 책이 쓰인 당시의 시대적 맥락뿐 아니라 서술 대상과 서술 방식 등을 두루 살폈다.

“지독히 재미없게 글을 썼던 랑케가 ‘역사의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학문적 업적이지 않 다른 하나는 치명적이고 중대한 인식의 오류다. 랑케의 업적은 오히려 덕분에 빛나며, 오히려 업적 때문에 돋보인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역사학은 그가 이론 업적의 토대 위에서 그가 저지른 오류를 극복하면서 가치를 뽐내고 꽃을 피웠다. 이런 인물을 빠뜨리고 역사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사는 사실을 쓴 이야기이고 언어로 재현한 과거인데, 남의 언어로 재현한 남의 과거 이야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흥미를 느끼려면 그 책이 담고 있는 기초 정보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그 모든 낱선 정보를 다 검색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다. 서사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충분하다. 우리가 옛 역사서를 읽는 것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나는 역사가 문학이라거나 문학이 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훌륭한 역사는 문학이 될 수 있으며 위대한 역사는 문학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 다른 역사서들을 읽으면서 나는 흥미로운 역사의 사실을 아는 즐거움을 얻었고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돌아봤다. /뉴스시스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태' 관여 공무원 "엄정 조치"

“명단 확정된 만큼 내부 감사 진행”

“명단이 확정된 만큼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문체부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의결한 ‘블랙리스트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안’과 관련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은 130명. 문체부 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을 포함해 26명은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위선의 지시 또는 자발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직원들 104명이 징계 권고 명단이 확정됐다. 책임규명 권고안에 포함된 이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피해가 워낙 광범위했던 만큼 관여 공무원과 직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확실한 제도 개선과 책임 소재 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전달받은 문체부는 긴장 분위기다. 징계 규모가 역대급이기 때문이지만 내부 감사를 늦출수도 없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장관의 입장은 분명하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에서 책임규명 권고안을 보내오면 처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시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안'과 관련 내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가 사회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27일 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을 개관했다.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새 단장 지역민 맞는다

자연사 주제... 생태·지질·동·식물 다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대학에 축적돼 온 다양한 표본을 통해 자연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사회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27일 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을 개관했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개관식에는 이남호 총장과 박진호 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대학 내 구성원 등이 함께해 새롭게 단장한 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개관을 축하했다.

호남권 대학 최초의 자연사 박물관인 이곳은 그동안 대학이 갖고 있던 자연사 표본과 채집 및 기증을 통해 전시물을 확보했고, 건물을 쓰임새 있게 리모델링 해 체험과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상설 전시실은 '정라북도의 자연사'를 주제로 삼았다. 지역의 생태와 지질 및 암석, 동·식물, 그리고 학자의 방 등이 마련돼 있다.

나열식 전시를 지양하고 전북지역과 대학 주변의 자연 자원을 중심으로 생태적 특성을 강조한 디오라마 및 식물표본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전시가 특징이다.

전북대 학술림인 건지산과 생태계의 보고인 오송제의 모습을 실내에 재현했고, 적포 채석강, 진안 마이산 등 전북 지역 지질명소의 형성 과정과 이를 이루는 암석이 전시됐다.

특히 전북대 상징동물인 표범과 전북에서 채집한 곤충표본, 전주천에서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 말총귀에 처한 향라머리검독수리, 매, 큰고니 등 다양한 동물과 계통에 따라 분류된 식물을 만나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북대는 전시와 연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도 새롭게 조성했고, 연내 수장고와 영상체험실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 '도시문화 아카데미' 시민들의 활력소 되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가 되면 남원아트센터(구KBS방송국)는 활기를 띤다.

그 이유는 '도시문화 아카데미-남원 소리 두드림'에 참여한 시민들의 흥겨운 리듬과 타악 소리 때문이다.

남원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인 '도시문화 아카데미'는 남원시민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획프로그램으로, '남원 소리 두드림'과 더불어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남원 팟 캐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원소리두드림'은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와 신체(박수, 몸두드리기, 발구르기 등)를 두드리며 남원의 리듬을 만들어 가는 타악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손이나 발 구르기 등 신체를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바디퍼커션 기초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새로운 리듬을 개발하고 인무를 배우는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을 거친 시민들이 남원에서 직접 공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문화도시를 통해 바디퍼커션이라는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기쁘고, 매주 월요일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과정들이 너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도시 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도시문화 아카데미는 남원 아트센터에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